

# 사회이동과 계급

안 치 민\*

## 목 차

1. 계급논의와 사회이동
2. 연구범위 및 방법
3. 계급경계 논의
4. 계급이동 현황
5. 계급이동과 계급의식
6. 맺 음 말

## 1. 계급논의와 사회이동

사회이동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기능주의적 시각의 계층론적 관점과 계급론적 관점이라는 각기 다른 이론적 전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이동연구를 행하는 자체가 전자의 시각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이동연구의 대부분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계급연구에서 이동분석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은 계급에 대한 편협된 정의에 기인한다. 즉 계급을 구조적 위치로부터 연역하고, 이에 따라 계급의식은 규정된 계급위치에 의해 도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계급이란 역사적으로 형성 또는 구조화되는 실체이며, 계급의식은 경험히 구현되는 방식이지 구조적 위치로부터 단순히 연역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형성 또는 계급구조화의 관점에서 계급의 역동적인 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은 계급의식과 사회이동이다. 계급의식이 계급형성의 중심 개념이라면, 사회이동은 계급의 와해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이라 볼 수 있겠다.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 연구범위 및 방법

계급간 이동의 폐쇄성은 결국 계급내 성원들의 경험을 단일화하고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급의식을 성장시킴으로써 계급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급간의 이동율을 분석함으로써, 계급의 구조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립되는 이론상의 계급경계 문제에 있어서도 각각의 경계에 대한 이동율 분석을 통해 계급경계의 이동에 입각한 적합성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론에 입각한 계급모형의 적합성 여부 또한 이동분석에 의해 검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다.

- (1) 앞서 논의된 이론상의 계급경계문제를 이동율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즉 다섯 가지 계급경계 각각을 기준으로 계급이동을 비교 분석한다. 여기서는 주로 이동율을 비교하여 이동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적합한 계급경계로 추론, 계급구조화의 맥락을 검토한다.
- (2) 공동연구에서 설정된 계급구조화 모형을 바탕으로 계급이동을 분석한다. 이동율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입 및 유출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 계급에서 타 계급으로의 이동과정 및 이동거리 분석을 통해 이동의 계급구조화 현황과 추세를 파악한다.
- (3) 계급이동의 경험이 실제적으로 계급경험과 계급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결과적 논의로 살펴 본다. 이동분석을 통해 계급구조화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동상황이 생활경험과 계급의식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계급은 계급의식과 계급행위에 의해서 정의될수는 있어도 사회이동에 의해 정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 이동 중 세대간 이동분석에 한정한다. 세대내 이동은 각 개인의 계급체제를 밝혀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지만 계급형성이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세대간의 경험과 의식의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세대간 이동이 보다 큰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급이동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계급경험과 계급의식 중 계급의식에 한정한다. 본 연구자료가 경험을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공동의 경험이 결국 계급의식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연구의 계급모형이 어디까지나 이동변수를 고려치 않은 가운데 확정된 모형이라는 점에서 (2), (3)의 분석에서 본 연구자가 브라이거에 입각하여 이동분석에 의해 설정한 계급구조화모형에 의한 분석을 보충하여 비교설명하기로 한다.

### 3. 계급경계 논의

본 공동연구는 앞서 계급모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간계급(신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경계를 설정하는 이론에 입각하여 다섯 가지의 계급경계를 논의한 바 있다. (1)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의 구분, (2) 생산적노동과 비생산적노동의 구분, (3) 감독직노동과 비감독직노동의 구분, (4) 전문직노동과 일상적노동의 구분, (5) 자격취득노동과 자격미취득노동의 구분이다. 그러면 각각의 경계에 대한 이동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각 계급경계와 이동율

(단위 : %)

경 계	이 동	비 이 동
육체 - 비육체	54.9	45.1
생산적 - 비생산적	54.9	45.1
감독직 - 비감독직	49.7	50.3
전문직 - 일상적	37.9	62.1
자격취득 - 자격미취득	34.7	65.3

각 계급경계의 집단구분에 따른 집단간의 이동율과 비이동율을 살펴본 결과, 순전히 사회이동에 의한 계급경계의 적합성은 비이동율 즉 세습의 정도가 높은 순으로 자격취득노동과 자격미취득노동, 전문직노동과 일상적노동, 감독노동과 비감독노동, 비생산적노동과 생산적노동, 비육체노동과 육체노동의 순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3장에서 다양한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계급 또는 직업분류인 육체 - 비육체 노동의 이분법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유용한 계급경계가 될 수 없다. 급격한 산업화, 계급분화와 더불어 비육체노동이 양적으로 성장 및 질적으로 분화되고, 또한 육체노동도 급격한 성장과 분화를 경험함에 따라 비육체노동의 하층부와 육체노동의 상층부의 경계는 무의미해 졌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맑스주의 경제적 전통의 계급분류인 생산적 - 비생산적 노동의 계급경제도 유효하지 않다. 이는 육체 - 비육체 노동이라는 경계와 유사하게 비생산적노동의 비대와 계층화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전문지식 및 자격취득여부는 계급경계의 유효한 판별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지식 및 자격증은 단순히 비육체노동 즉 화이트칼라 선호라는 전근대적 논리를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산업화, 정보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실용적 가치추구와도 맞물리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전문지식 및 자격증이 상당 정도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또는 학력 중시라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정서와도 부합되고 있다.

## 4. 계급이동 현황

계급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본 공동연구의 계급모형을 바탕으로 배경계급과 응답자계급의 교차표를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이동율은 약 80.2%, 그리고 세습율은 약 19.8%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이동율로 나타난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의 정도는 계급형성이라기에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뿌띠-신중간-노동의 3계급으로 구분하더라도 이동율 76.6%, 비이동율 23.4%로 나타나고 있다. 유출과정과 유입과정은 뿌띠-신중간-노동의 3계급모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해 볼 때 세 계급 중 뿌띠계급이 비교적 폐쇄되어 있고 노동계급으로부터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노동계급에서 신중간계급으로 그리고 신중간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의 이동은 활발하다.

다음으로 비교를 위해 이동으로부터 연역된 계급모형에서의 이동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의 이동율은 약 44%, 세습율은 약 56%를 나타내고 있어 앞의 계급모형에 비해 현격히 낮은 이동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출과 유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간계급과 하층계급이 상층계급에 비해 좀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계급이동에는 이동거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중간계급과 상층계급간, 그리고 중간계급과 하층계급간과 같이 1단계 이동이나 교류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상층계급과 하층계급간의 2단계 이동이나 교류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약 44%라는 계급간의 비교적 높은 이동율은 대부분 단거리 이동에 의해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표 2〉 계급이동 : 유출과 유입

배 경	응답자	유 출	배 경	유 입	응답자
뿌 띠 127	뿌 띠	46 (36.2%)	뿌 띠	46 (43.0%)	뿌 띠
	신중간	22 (17.3%)	신중간	55 (51.4%)	107
	노동	59 (46.5%)	노동	6 (5.6%)	
신중간 161	뿌 띠	55 (34.2%)	뿌 띠	22 (13.0%)	신중간
	신중간	41 (25.5%)	신중간	41 (24.1%)	170
	노동	65 (40.3%)	노동	107 (62.9%)	
노동 122	뿌 띠	6 ( 4.9%)	뿌 띠	59 (44.4%)	노동
	신중간	107 (87.7%)	신중간	65 (48.9%)	133
	노동	9 ( 7.4%)	노동	9 ( 6.7%)	

이상과 같이 볼 때, 공동연구의 모형과 이동연역모형의 이동현황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동연역모형의 이동율이 낮은 것은 이 모형이 최소 이동율을 상정하는 가운데 설정된 모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형 자체가 변화하는 소유관계 또는 생산관계의 구조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계급의 지위집단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연구의 모형은 주로 자본주

의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반면, 이동연역모형은 불평등구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 종합될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소유관계,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자본주의적 계급구성과 계급분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불평등의 구조화는 세습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점은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이동율은 주로 단거리 이동 즉 하층 또는 노동계급에서 중간 또는 신중간계급간의 이동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공동연구의 모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계급에서 신중간계급으로의 상승이동이 용이한 반면, 이동연역모형에서는 상승이동에 비해 하강이동이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 5. 계급이동과 계급의식

본 연구는 계급의식을 계급정체감과 계급이해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공동연구의 계급모형에 따라 계급을 뿌띠부르주아, 신중간, 노동의 3계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뿌띠계급과 신중간계급, 뿌띠계급과 노동계급간에는 이동과 계급의식을 살펴본다는 것이 그리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따라서 신중간계급과 노동계급간의 이동에 따른 계급의식의 변화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계급이동 유형별 계급의식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3>이다.

계급이동별 계급정체감과 계급이해의 평균은 신중간계급-신중간계급으로 부터 노동계급-노동계급까지 서열화되어 있지 못하다. 즉 계급이동별 계급의식은 아무런 차이를 내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래 현 계급모형에서 계급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표의 내용을 상세히 보면 신중간계급과 노동계급간 계급정체감과 계급이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3> 계급이동과 계급의식 : 변량분석

계급이동		계급정체감			계급이해		
배경계급	계급	평균값	F	유의수준	평균값	F	유의수준
신중간 노동	신중간	0.48	0.61	n.s	-0.39	0.33	n.s
		0.44			-0.35		
신중간 노동	노동	0.46					
		0.39			-0.40		
계(평균)		0.45			-0.37		

\*\* 계급정체감의 평균은 상층일수록 +1에, 하층일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며, 계급이해의 평균은 반노동자 성향일수록 +1에, 친노동자 성향일수록 -1에 근접하는 값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이동연역모형에서 계급이동별 계급의식의 차이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계급정체감의 평균값은 현재의 계급을 기준으로 볼 때 동일계급내에서는 서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급이동에 따라 계급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계급위치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계급이동의 경험에 따라 계급정체감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이동별 계급이해는 아무런 차이를 내포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결과는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가 형식적 맥락이나 계급정체감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급이해의 수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두 모형에서의 계급이동에 따른 계급의식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선 계급정체감의 수준에서 공동연구의 모형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이동연역모형에서는 차이가 검증되고 있다. 그리고 계급이해의 수준에서는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사회에서 계급의식은 계급이해의 수준까지는 형성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여 계급이동이 의식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계급정체감의 수준에서의 계급형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계급이동에 따른 계급의식의 차이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급간 계급정체감이나 계급이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두 모형에서 그것이 뚜렷치 않았다. 그러나 이동연역모형의 계급정체감은 비교적 계급간 차이를 내포했기 때문에 계급의식의 형성이 계급이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다.

## 6. 맺 음 말

본 연구는 한국사회 계급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이미 설정된 계급모형을 토대로 사회이동 또는 좁게는 계급이동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계급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연구의 모형은 이동변수를 고려치 않은 가운데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의 계급모형 외에 필자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이동연역모형을 부가하여 비교분석을 행했다. 이동연역모형은 이동의 폐쇄성을 통해 공동의 경험과 의식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계급형성 또는 계급의 구조화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우선 계급경계 논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 구분되는 기준은 육체-비육체 노동이나 맑스주의 경제적 전통인 생산적-비생산적 노동이라기 보다는 전문 지식 또는 자격취득 여부가 더욱 적합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현대사회의 실용적 가치추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계급이동 현황은 두 모형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계급간 이동은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사회로의 구조의 재편을 반영하듯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두 모형의 이동율의 차이를 볼 때, 높은 이동율이 우리사회의 불평등구조의 개방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생산관계 또는 소유관계의 변화 즉 자본주의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둘째, 높은 이동율은 대체로 근거리 이동 즉 신중간계급의 하층부와 노동계급의 상층부간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또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고 계급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계급의 양적 성장 및 내적 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계급이동은 계급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명확치는 못했다. 왜냐하면 계급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이것이 검증될 수 있는데, 한국사회의 계급의식은 거의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